

지금은 U-20 월드컵 기간... 전주, 2000만 관광객 시대 열까?

세계에 알릴 문화관광체험 다채

FIFA U-20월드컵이 20일 전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전주시가 대회 관람을 위해 전주를 찾는 국내·외 축구팬들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한 전주시는 이번 U-20월드컵을 맞아 더욱 풍성한 전주만의 문화·관광콘텐츠를 잘 활용해 2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로 했다.

먼저, U-20월드컵 개막도시 전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전야행사의 일환으로 KBS 뮤직뱅크가 19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졌다. 또, 이후 오후 8시부터는 볼꽃놀이와 3D 유티터스크린 플래잉 보드 쇼 등 화려한 볼거리가 마련돼 전주를 찾는 국내외관광객들과 전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덕진공원 3D유티터스크린쇼와 문화공연은 U-20월드컵 기간 내내 매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다.

또한, 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17 전주한지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가 대한민국 한지의 본류이자 중심지로서 한지의 세계화와 한지를 비롯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로, '전주한지, 은누리에 펼쳐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이벤트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놀거



“뮤직뱅크 보러왔어요” 지난 19일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TV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 공연이 예정된 가운데 시작 2시간 전부터 관객 대기 장소는 구름인파가 몰렸다.

KBS 뮤직뱅크·한지축제·전통연희 페스티벌 등 개최 전주단오제·비보이그랑프리대회 등도 추후 개최

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전주만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문화행사와 공연도 펼쳐진다. U-20월드컵 개막일인 20일부터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전통연희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경기전에서는 수문장 교대의식도 진행돼 볼거리가 마련된다. 전통연희 페스티벌은 남천교 청연루

에서 진행되는 무료 깃발 만들기 체험과 전주기찻길을 중심으로 한 연희페스티벌과 거점별 연희공연, 어르신 취미대 공연 등으로 이뤄지며, 수문장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궁을 수위하던 수문장의 교대의식을 참고해 전주다움으로 새롭게 연출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을 오래 보

존하기 위해 책을 맡겨 습기를 제거해 충해를 막는 조선왕조실록 포쇄재현행사가 3일 오후 2시 경기전 내 전주사교(全州史庫)에서 진행되고, 27일부터는 마당창극 ‘천하명인이 눈을 뜬다’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전주에서는 대회기간 △한옥마을 촬영대회(6월 4일) △무형문화재의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전주 굿 솜씨 마당’ △전주한지문화미디아산전진(20일~25일), △전주단오제(30일~31일), 전주비보이그랑프리(28일)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김민근 기자

최대규모 에너지체험전 열린다

24일부터 나흘간 정읍 천변 어린이축구장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체험전이 정읍에서 열린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 바로 알기 일환으로 마련된 '2017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하 에너지 체험전)'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펼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에너지 체험전에는 산하 4개(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과 정읍시가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주제관과 정읍시관, 안전관이 운영된다.

주제관은 '에너지를 구하라'와 '에너지와의 만남', '미래에너지' 모두 세 가지 주제의 체험관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에너지 관련 O·X 퀴즈와 자기 부상 팽이 만들기, 미래 에너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시관에는 미시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만날 수 있다. 안전관에서는 어린이 교통과

생활안전 등을 3D로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파와 녹색 등을 친환경 에너지 등을 이미지화해 구성한 포토존도 운영한다.

시는 "에너지 자원의 기초 지식을 알아보고 보고, 듣고, 만지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그린에너지(Green Energy)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 에너지의 소중함과 안전함, 그리고 에너지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정읍지역 초·중·고교 학생을 포함해 관람을 원하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희망 학교는 에너지 체험 사무국(☎02.323-0049)으로 신청하면 되고, 학교에서 체험장까지 무료버스를 운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남대 총학생회 “서울 시립대 정상화 지지”

“교육부, 계획안 즉각 채택해야”... 교수협의회, 지지 탄원서 제출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서울 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선정된 가운데 서남대 학생들이 서울 시립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서남대 남원·아산캠퍼스 총학생회는 1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서울 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재정기여자 즉 인수우선협상대

상자로 서울 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 등 2곳을 복수로 선정, 교육부에 추천했다.

총학생회는 “오랜 고통 끝에 시작되는 학교정상화는 다이상 학생들에게 피해를 요구하는 과정이 아니어야 한다”며 “삼육학원의 정상화계획안은 부실 투성이의 이기적인 계획서인만큼 교육부는 삼육학원의 계획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지역발전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

는 서울 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며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옛)재단이 학교를 다시 운영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며 “교육부가 조속히 정상화 과정을 마무리해 학생들의 피해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수협의회 등 서남대 구성원들도 서울 시립대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해경, 새만금 내측 수상레저 활동 금지방안 검토

새만금 내측 수역이 카이트 보드 등의 최적지(最適地)로 입소문을 타면서 활동 인원이 크게 늘자 해경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9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새만금 내측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심각한 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새만금 내측 수역(水域)은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파도와 조류의 영향이 없어 최적의 수상레저 활동 지역으로 급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장현 기자

정읍시의원 땅 인근 도로 개설 특혜의혹 불거져

전북경찰, 수사 착수

A의원 “해당 부지에

도로가 날 것 같았다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

하지 않았을 것”

평)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해당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4억5000만원(용지보상비 3억3000만원, 도로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지난 4월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정읍시 도시개발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입건해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의원은 “억울하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면서 “해당 부지에 도로가 날 것 같았다면 돈을 들여가며 현재 진행 중인 형질 변경 같은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땅에 스크린야구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옆으로 도로가 나는 것보다 그냥 빈 땅으로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